



1946년 3월 창간 제 2730호

E-mail : i honam@naver.com



2019년 6월 20일 (음력 5월 18일) 목요일

호남신문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이르면 8월 말 착공...1182억 증액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절차가 모두 마무리 돼 1단계 착공이 이르면 8월 말께 이뤄질 전망이다.〈관련기사 2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19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호선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미스터즈대회 폐막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최대 난관이었던 기획재정부와의 종사업비 협의를 지난 3일 완료했다”며 “완료된 종사업비는 2조1761억원(국비) 1조 3057억원·시비 8704억원으로 당초 2조579억원 대비 1182억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기본 설계 이후의 실시설계 결과와 물가 및 지가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종사업비 협의 완료에 이어 국토부의 사업계획 승인도 지난 13

기재부와 총 사업비 2조1761억원 확정

1단계 17km·정거장 20개소 착공 예정

6개 공구발주, 8월 중순께 시공사 선정

일 완료돼 도시철도 2호선 착공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덧붙였다.

저심도 경전철 방식의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는 오는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1단계 구간은 시청에서 월드컵경

기장·백운광장·조선대를 지나 광주

역까지 총 연장 17km이며, 정거장 20

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한다.

공사발주는 시공능력이 우수한

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업체

와의 상생, 복합공정의 현장여건 등

을 감안해 6개 공구로 분할한다.

업체 선정은 8월 중순께로 예상돼 이르면 8월 말께 기공식을 가질 전망이다.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호선 건설공사 시 지역민 고용,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지역에서 생산된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 등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부실 없는 안전한 공사를 위해 안전·품질·공정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연중 쉼 없는 안전 점검 활동을 추진하는 등 안전사고 없는 도시철도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19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교통대체 컨트롤타워인 교통차리 계 구축, 난공사 예상 구간에 대한 특별대책단을 구성했으며, 대책단은

대책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도시철도 2호선이 개통되면 광주지역 대부분을 30분 내에 오고갈 수 있는 대중교통시스템이 구축된다”며 “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교통복지,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철도 2호선 역사 20곳 중 광주시청과 상무지구 BYC건물 인근 역사의 출입구가 단 1곳으로 화재 등 재난 시 대피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 박남주 본부장은 “승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역사 6곳을 대상으로 안전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법적 대피시간 기준인 4분보다 빠른 2분으로 나왔다”며 “2호선은 1호선과 달리 경진 철 차량 길이가 짧아 출입구 수가 적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서은홍 기자

‘소록도 천사’ 노벨상 추천 서명 100만명 ‘육박’



100만인 서명운동’에는 정관계, 학계, 재계, 복지의료, 봉사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립)도 일생을 한센인을 위한 봉사와 헌신으로 살아온 두 간호사의 교훈적 삶을 제조명하며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왔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부터 5일간 싱가포르에서 세계간호협의회 주최로 열리는 세계간호학술대회에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초청자 자격으로 참석해 각 나라 대표 간호사들에게 미리안느·마기렛의 회생정신과 노벨평화상 수상 당시 성을 알려나갈 계획이다. 세계간호학술대회에는 130여 나라 5000

간호사 마리안느·마기렛 위대한 봉사와 헌신 정신 기려

6월말 목표 달성...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 2020년 추천

그 결과 19일 현재까지 91만 5470명이 서명에 참여해 6월 말 목표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남도와 마리안느·마기렛 노벨평화상 범국민 추천위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내외 홍보활동을 펼치고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이 되는 2020년 노벨평화상 추천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추진된 ‘마리안느·마기렛 노벨평화상 추천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여 명이 참석한다.

마리안느 스토거(Marianne Stoeger·85)와 마기렛 피사렉(Margaretha Pissarck·84), 두 간호사는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1962년과 1966년 각각 한국 땅을 밟아 소록도에서 40여 년을 한센인을 위해 봉사했다.

김정환 기자

강진산단 1년만에 16%→100% 분양

강진군-전남개발공사, 협업·원스톱 맞춤형 판촉

1년만에 분양률이 16%에서 100%로 완료된 강진산단의 분양 비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전남개발공사에 따르면 강진산업단지는 사업 착공 전 수요조사 단계에서는 기업들의 입주희망이 줄을 이어 전체 산업시설용지 대비 103%의 기업유치가 가능하다는 청사진을 가지고 출발했으나 2014년 7월 분양개시와 동시에 산업경기 악화와 경기침체가 동반돼 단 한건의 기업유치도 성사를 이루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했다.

전남개발공사와 강진군은 분양활성화를 위해 입지보조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 추진했지만 분양률은 나이징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전남도내 대표적인 장기 미분양 산단으로 남아 있었다.

또 양 기관이 분양공고 3년 후 미분양용지를 인수하기로 체결한 협약으로 인해 갈등이 악화되고

있었으며, 지자체가 부담하기에는 미분양 용지 인수금액이 너무 많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지난해 9월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 취임과 동시에 강진산업단지 분양활성화를 위해 민선7기에 들어선 이승우 군수와 머리를 맞대고 분양대책을 논의했으며 공동협의체를 구성·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전남개발공사는 입주조건 완화를 위해 기업체의 초기 자본 부담을 낮추는 대책과 조기착공을 통한 산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금 할선을, 군은 입주기업에 보조금 지원 폭을 넓히고 편의시설 확충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는 본격적인 협업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또 분양성과를 높이기 위해 전남개발공사는 기존 분양보상처로 승격하고 분양인력을 증가시키는 조작개편을 주진

했다.

강진군 이승우 군수는 임기 내 강진 산단 100% 분양이라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투자유치 전담부서 확대, 투자유치 직원 인사우대 가점부여, 기업발전 군민포상제도, ‘민간 투자유치위원회’ 출범을 했다.

두 기관장의 이러한 행동이 조금씩 빛을 발하면서 분양률이 두드러졌다.

10%였던 분양률이 지난해 11월 63%를 달성하고 마침내 이달 100% 분양을 달성했다.

전남개발공사 김철신 사장은 “장기간 침체의 끈에 빠져었던 강진 산단이 이제 활기를 찾게 됐다”며 “앞으로는 입주기업들의 조기착공을 통한 산단 활성화를 위해 더욱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 산단은 강진군 성전면 송학리, 명신리 일원에 총 65만7000㎡ 규모로 지난 2010년 8월에 강진군과 전남개발공사가 공동시행으로 2018년 2월에 준공됐다.

유치기업 총 42곳 투자규모 1조 2630억 원 일자리창출효과 1126명으로 나타났다.

강진=김영일 기자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빼이 있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MBC 월화드라마 특별근로감독관 조장풍 中>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공공노동자의
돈든한 힘 이 되어 드립니다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공공연맹은 이런 일을 합니다.

- 공공기관 노조를 대표해 정부부처와의 노정협의를 진행합니다. ★★★★☆
- 2019년 노정협의 주요 안건 노동이사제 도입, 경영평가제 개선, 근로시간단축 임금피크제 폐기 등
- 지방정부와의 노사정협의를 구축을 위해 노력합니다.
- 서울시, 대구시 등 노사정협의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공공부문 노조들의 현안해결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지원합니다.
- 2018년 광역지방자치단체와 노동존중 지방정부 건설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공연맹은 5만 명의 공공부문노동자가 함께 합니다.

- | | |
|--------------|---|
| 국가공공
기관노조 | 한국농어촌공사노조,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
| 지방공공
기관노조 | 대구도시공사노조, 인천도시공사노조, 대구도시철도노조, 부산관광공사노조, 부산환경공단노조, 경기도시공사노조 등 50여개 |
| 공무직
노조 | 경찰청주무관노조, 전국통계청노조, 농림축산식품부노조, 국토교통부공무직노조, 충북도청 공무직노조 등 20여개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공공연맹) 조직가입상담

문의 | 02-6277-2280 이메일 | fku00@gmail.com 홈페이지 | www.publicunion.or.kr